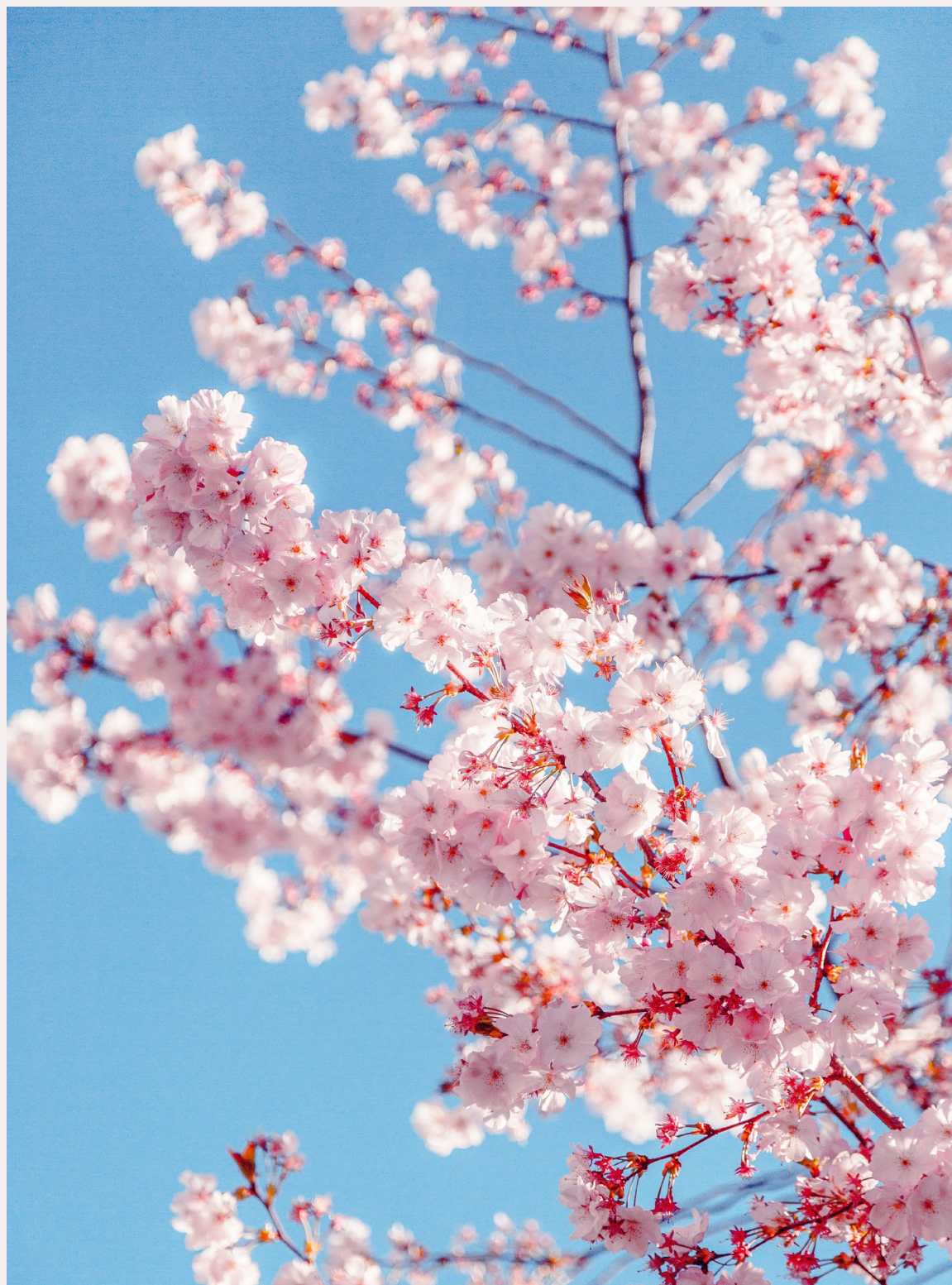


**2022**

2022.04.21

Newsletter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 목차 · Contents

04 APR 21

HIS 메세지 · HIS Message	05
부활절 묵상 · Easter Devotion	06
전체 소식 · General News	07
학부모 기도회 · Parents' Prayer Meeting	
성금요일예배 · Good Friday	08
초등 소식 · ES News	09
필드 트립 · Field Trip	
중고등 소식 · MHS News	10
필드 트립 · Field Trip	
CU@thepole	11
중등 정서행동특성검사 · MS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est	12
고등 제8회 토론 한마당 결승전 · The 8th HS Korean Debate	13
생활관 소식 · Dormitory News	15
상담실 소식 · Counseling News	18
도서관 소식 · Library News	19
Creative Corner	21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5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1 Timothy 2:5



APR. 21

## 부활절과 생명 · Easter and Life

박에스터 초등 디렉터 | Ms. Esther Park ES Director

저의 아들은 최근 100일이 되어 생기가 넘칩니다. 10cm 이상 자라 머리를 들 수도 있고, 계속해서 웃으며 웅얼이를 합니다. 1년 전 오늘, 제 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임신 7주 쯤 되던 날, 저는 제 아들의 첫 심장박동을 느꼈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 된 오늘, 세차게 울면서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후로 아이는 살아 숨쉬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며 생명을 기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육체, 영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땅의 흙으로 우리 몸을 지으셨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시고 숨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제 인생의 일부에만 집중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의 남편과 함께 아이를 양육할 때, 저희는 주로 아들의 육체적 건강에 관심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밥을 적당히 먹고 있는지, 열은 없는지, 시기에 맞게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지. 아들의 영적인 성장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육신과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중요하합니다.

혹시 아이의 대학입시만큼 아이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반대로, 아이의 영적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에서 배워야 할 사회성에 소홀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양육자로서, 저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처럼 아이의 전인격을 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바라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35, 40)

My son turned 100 days old recently, and he is just full of life. He has grown more than 10 cm, can hold his head up, and smiles and babbles constantly. One year ago today, my son did not exist in this world. I heard his heartbeat for the first time at week 7 of pregnancy. One year later, he clearly announces his existence with his fierce cries. Ever since God gave life to my son, he has been living and growing.

We just observed Easter, and it was a celebration of life. Jesus conquered death and lived again! Jesus is the source of life, physical and spiritual. When God created us, He formed our bodies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His spirit into us. He created our physical body and gave breath. Through Him, our spirit can have eternal life.

But I often find myself focusing on one aspect of life. As my husband and I are nurturing our son, we mainly care for his physical well being. Is he eating enough? Does he have a fever? Is he reaching his milestones? His spiritual growth is not on our priority list. But God created each individual with a body and spirit. It's easier to concentrate on the visible things, but what is unseen matters greatly since we do not know the remaining days of our lives.

Do you care for your child's salvation as much as you care about his college entrance? Or the other way around, are you so concerned about your child's spiritual growth that you are overlooking her social needs at school? As caregivers, I pray that parents and teachers would care for the child's whole being as Jesus did. And I hope that we all remember what 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John 6:35, 40)



#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 O Death, Where is Your Victory?

박성민 중고등 성경교사 | Mr. Sungmin Park MHS Bible Teacher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되는 토요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이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너무나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영원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분은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second Adam; 고전 15:45)으로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영원히 부활한 인간, 즉 첫 번째 “열매”(고전 15:20)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었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사망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5).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의 열 두 제자(맛디아 포함)는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죽어도 살 것이며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부활의 믿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또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_ 고전 15:55

After Jesus' resurrection, Christians began to worship on Sunday, not on Saturday, which is the Sabbath, because they knew that Jesus' resurrection changed everything. Before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re was no real hope for mankind because of the problem of 'death'. Death has been one of the biggest unsolvable problems for mankind.

But Jesus' resurrection became the clearest evidence that the problem of death was resolve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even if he dies, will live,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John 11:25-26). Lazarus was raised from the dead, but he eventually died again. However, Jesus' resurrection was different because he lived forever. Jesus as the second Adam (Adam means 'man' or 'human'; 1 Corinthians 15:45) became the first human being who resurrected from the dead; so, the Bible declares that Jesus was the first “fruit” (1 Corinthians 15:20) of the resurr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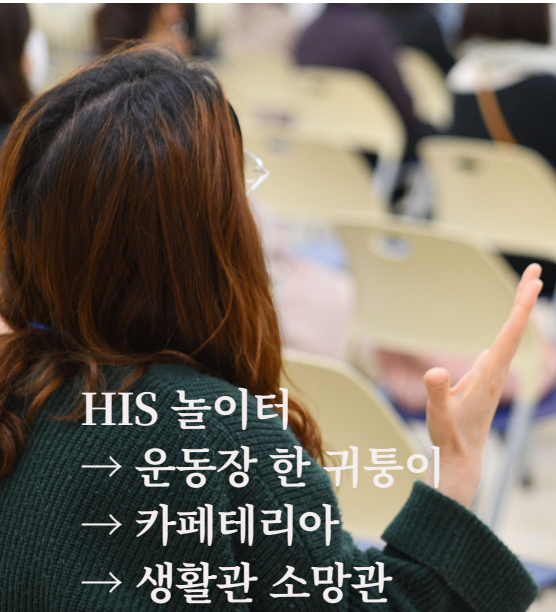
Christians too will experience eternal resurrection with Him in the end. So, Christians now can laugh about the threat of death just like the Apostle Paul did: “O death, where is your victory? Death, where is your sting!” (1 Corinthians 15:55). According to the church tradition, all twelve of Jesus' disciples (including Matthias) were martyred, and this shows that they were not afraid of death at all. This was possible because at the core of their faith was the risen Lord. They believed that ‘even if they die, they will live, and if they live, they will live forever.’

We should imitate their faith; we should follow their example. We should also be able to laugh about the threat of death because we believe in the resurrected Lord:

O death, where is your victory?  
O death, where is your sting? \_ 1 Cor 15:55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IS 놀이터

→ 운동장 한 귀퉁이

→ 카페테리아

→ 생활관 소망관

→ 감사관 채플실까지...

HIS Playground

→ One corner of the Field

→ Cafeteria

→ Dormitory Hope Hall

→ Chapel in Thanksgiving Hall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마치 “땅 밟기 기도” 라도 하듯 HIS 캠퍼스 곳곳을 밟으며 기도의 자리를 이동해 오다가 드디어 지난 주 수요일 (4월 6일) 채플실에서 2022년 첫 학부모기도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학기가 더 뜻 깊은 것은 초·중·고가 연합하여 모인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연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던 56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느 곳도 은혜롭지 않은 곳이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늘 예배 드리는 처소인 채플실에서의 기도회는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가 더욱 강력하게 느껴지는 예배였습니다.

저희 학부모 기도회는 먼저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와 열방,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어 이곳에 하나님의 학교 HIS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한동의 구성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중고등 27명, 초등 3명의 MK를 포함한 HIS 전교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HIS 학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절대 진리를 믿으며!

HIS 학생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자녀 될 것을 믿으며!

기도도 하는 엄마가 아닌, 기도로 사는 엄마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끝으로 때마다 상황마다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As if we were “Prayer walking” due to covid-19, after going place to place for prayer meetings, we finally started our first Parents’ Prayer Meeting in 2022, at the Chapel. What makes it more special is th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parents have gathered together as one.

We were deeply moved and worshiped in joy when we felt how God was pleased with unity inside the group, with 56 mothers who were connected in an unseen prayer cord at the place they were called.

Though we are grateful for all places,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was more powerful when we set foot in the Chapel, where our children gathered to worship God.

Parents’ Prayer Meeting prays for our country and nation, the Korean church and all nations, and the next generation. Next, we give thanks to God for building God’s school, HIS and bless our vice principal, teachers, faculty/staff members, and all students, including 27 MHS and 3 ES MKs. We also pray that God reveals our calling more specifically to HIS parents.

Believing the absolute truth that a praying child can never fail!

Believing that all HIS students will be successful in God!

To become a parent that doesn’t pray from time to time, but lives upon prayer.

Lastly, we praise God for providing a place to gather in prayer at the right time and would like to share our gratitude for teachers.





4/15(금) 중고등학교 학생회는 성금요일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 고난주간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을 묵상하였고. 매일 아침 학생회가 주관하는 CU@thepole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였으며, 금식, 침묵데이, 버스킹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성금요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당일날 많은 학생들, 학부모, 선생님들이 참석하였고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찬양팀, 고등부 특송, 고난주간 영상, 말씀, 기도회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또한 준비한 십자가 위에 자신의 죄를 적고 붙이며 “모든 죄를 사하신” (골 2:13-1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동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토해내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정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On Friday, April 15th,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council prepared a worship service to commemorate Good Friday. During the Holy Week before Good Friday worship, the student body meditated on “the Seven Sayings of the Lord on the cross”; every morning, students gathered for the CU@thepole prayer meeting hosted by the student council; some wanted to prepare for Good Friday in various ways such as fasting, doing a silence day, and busking concert.

Finally, a large number of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came out to worship at the Good Friday worship service and had a wonderful time. The service proceeded in the order of worship led by the high school praise team, the high school choir’s special song, the special Holy Week video, the exposition of the Word, and the prayer meeting. Also, students wrote a list of their sins they committed in the past on the paper notes and pasted them onto the cross, and they meditated on God ‘forgiving all our sins’ (Colossians 2:13-15). It was truly a meaningful time for us all. I could see that students poured out their hearts to pray when they were praying for their sins, and I was truly impressed to see them praying with passion. It was truly an amazing time and opportunity to remember the grace of God who did not even spare his own begotten Son to give us eternal life. We give all thanks and glory to God!







초등에서는 4월 13일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경험할 수 있는 식물원과 버드파크(동궁원)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새들이 학생들에게 날아와 먹이를 먹었고 또 다양한 새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식물원에서는 이국적인 식물을 감상하며 산책을 하였습니다.

Elementary students had a meaningful field trip to experience God's creation on April 13th. Students visited the botanical garden and the Bird Park (East Palace Garden) in Gyeongju. Colorful birds sat on students to eat bird seeds and students saw God's beautiful designs in many birds. Students also enjoyed a nice walk through the garden which was filled with exotic plants.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올해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4월 5일(화) 중고등 학생들은 필드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필드트립을 통해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세상 가운데에서 공동체로서의 부름심을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더 잘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필요들을 발견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학생은 경주월드, 고등학생은 이월드로 갔습니다. 각 도착지에서는 홈룸별로 모여 선생님과 학우들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팀별로 모여 선배와 후배들간에 서먹함을 깨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미션을 진행하며,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남겼습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 12:2)

Last Apr 5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d a field trip with this year's Bible verse in mind. We reminded ourselves of the calling as a community by going to fields apart from school. As students got to know each other, they could practice finding each other's needs and serving within their group.

Middle school students went to Gyeongju World and high school students headed to E-World in Daegu. At each place, homeroom teachers and students paired up and learned more about their teammates. In the afternoon, we formed groups and had time to break the ice between seniors and juniors. Students enjoyed their time as they took pictures with one another and carried out missions together in groups.





CU@thepole(See You at the Pole)은 1990년에 미국 한 학교에서 10명의 학생들이 국기게양대 앞에서 시작했던 자발적인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수백만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학생 기도운동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월, 화, 목, 금 오전 8:15부터 8:30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열려있는 CU@thepole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뜻 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CU@thepole is a global student-led prayer movement participated by millions of students that began in 1990 when ten students had voluntary prayer meetings before the flagpole of their school. At HIS, CU@thepole is held at 8:15-8:30 am on Mondays, Tuesdays, Thursdays, and Fridays. During the Passion Week, we opened the meetings to faculty, staff, and parents. It was a memorable week of us remembering that Jesus' suffering and sacrifice were for each one of us.



## 중등 정서·행동특성검사 · MS Emotional Behavioral Characteristics Test

장정은 상담교사 | Ms. JungEun Jang School Counselor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하여 2022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4월 11일 10학년과 4월 13일 7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통해 자녀의 성격특성과 청소년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정서·행동특성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개별 성격 특성에 맞는 양육과 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전달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Wee 센터 및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To support students'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we conducted the Student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est for 10th graders on April 11 and for 7th graders on April 13.

Through this test, we evaluate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at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adolescence, and provide guidelines about how to parent and educate student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will be delivered to each family by mail, and we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at students who need continuous support can receive systematic management in connection with home, school, Wee center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in local communities.





## 고등 제8회 토론 한마당 결승전 · The 8th HS Korean Debate

이주일 12C 담임교사 | Mr. Ju Il Lee 12C Homeroom Teacher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번 고등 토론 한마당은 총 14팀이 참가하여 “동물 실험을 허용해야 하는가”, “일과 중에 교내 휴대폰을 사용해도 되는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하는가?” 등의 주제로 말하기 예선을 거쳐 8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8팀은 다시 본선에서 “선의의 거짓말은 비윤리적인가?”, “대학입시에서 정시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등의 논제로 8강과 준결승을 치른 후 두 팀이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Since the middle of March, 14 teams have participated on this year's High School Korean Debate with the topics such as “Animal Testing”, “Allowing cell phone usage during work hours” and “Repeal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crime of murder.” After a preliminary round, 8 teams were chosen as the qualification round team. At the qualification round, the 8 teams competed with topics such as “Is a lie with good intentions unethical?” and “The ratio of regular admissions for college entrance exams should be expanded.” In the semifinal rounds, two teams advanced to the finals.





## 본선 진출 팀

논제 | 선의의 거짓말은 비윤리적인가?

팀명	참가학생
배연호 임주형	11C 배연호 · 11B 임주형
에이시	10A 방주형 · 10C 조성연
논리 甲	10A 김조애 · 10C 조하경
crash	10C 김다니엘 · 10C 김예현
딸기정원	10A 이윤설 · 10A 김정원
노랑 나랑 이기자	11A 노혜원 · 11A 장지윤
한동대표토론팀	11A 조하림 · 11A 안현빈
서현지민	12B 박서현 · 12B 이지민

## 준결승

논제 | 대학 입시에서 정시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팀명	참가학생
배연호 임주형	11C 배연호 · 11B 임주형
한동대표토론팀	11A 조하림 · 11A 안현빈
노랑 나랑 이기자	11A 노혜원 · 11A 장지윤
서현지민	12B 박서현 · 12B 이지민

## 결승

논제 | 1인 미디어를 규제해야 한다.

팀명	참가학생
배연호 임주형	11C 배연호 · 11B 임주형
서현지민	12B 박서현 · 12B 이지민

## Qualification Round Team

Topic | Is a lie with good intentions unethical?

Team Name	Participant
배연호 임주형	11C Yeonho Bae · 11B Juhung Lim
에이시	10A Juhyeong Pang · 10C Sungyeon Cho
논리 갑	10A Joae Kim · 10C Hakyong Cho
crash	10C Daniel Kim · 10C Yehyun Kim
딸기정원	10A Yunseol Lee · 10A Jungwon Kim
노랑 나랑 이기자	11A Hyewon Roh · 11A Jiyeon Chang
한동대표토론팀	11A Harim Cho · 11A Hyunbin An
서현지민	12B Seohyeon Park · 12B Jimin Lee

## Semi-final Round

Topic | The ratio of regular admissions for college entrance exams should be expanded.

Team Name	Participant
배연호 임주형	11C Yeonho Bae · 11B Juhung Lim
한동대표토론팀	11A Harim Cho · 11A Hyunbin An
노랑 나랑 이기자	11A Hyewon Roh · 11A Jiyeon Chang
서현지민	12B Seohyeon Park · 12B Jimin Lee

## Final Round

Topic | One-person media should be restricted.

Team Name	Participant
배연호 임주형	11C Yeonho Bae · 11B Juhung Lim
서현지민	12B Seohyeon Park · 12B Jimin Lee

<https://bit.ly/3LiMzLl>

토론 한마당 결승 영상 보러가기  
Watch Video of the Debate







## 생활관 소식 · Dormitory News

김경란 생활관장 | Ms. Kyeong-Lan Kim Dormitory Director

### 공동체 영성의 성경적 의미 · The Biblical Meaning of Community Spirituality

영성은 기독교인, 타종교인,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중요하게 여기며 인간으로서 보다 참된 삶을 살고자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영성은 타종교와 무신론자들이 이해하는 영성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성경적 영성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는 한 가지는 ‘영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설계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공동체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신 주인이 되기 위해 몸의 각 지체가 생명적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속성은 개인의 편리함보다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위해 보편적 패턴의 규칙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구조 속에는 여러 다양한 공동체 규칙이 존재하지만 기독교 공동체 규칙은 세상의 일반적 규칙과 구별됩니다. 기독교 학교 신앙 공동체에서의 규칙 준수 목적은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있고 이 여정 속에서 공동체 영성이 형성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일상의 작은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이 인격은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영성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살피볼 때 HIS 생활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편리한 개인 생활이 아닌 규칙을 준수하며 나와 다른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특별한 생활 영성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관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편리함대로 생활하면 공동체 생활에서는 반드시 타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더 교육받아야 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반드시 생활 가운데 실제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학교 생활관의 공동체 삶은 학생들에게 성경적 공동체 영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적절한 훈련장을 제공합니다.

HIS 생활관은 학생들에게 일관되고 공정한 규칙준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상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규칙의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징계를 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개인주의적 행동을

Spirituality is important not only to Christians but to those with other religions and even atheists, and has been studied to live a more true life as a human being. But Biblical spirituality is clearly distinct from the spirituality understood by other religions and atheists. Biblical spirituality is understood and organized by scholars, but there is one thing we all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The human being is the only one with spirituality.’ Not only humans but other creatures live in a community. But from the Bible we can see that the Christian community is formed by God’s special plan.

The essence of a Biblical community is that all the parts of a body are connected to make it a living organism, and the purpose of living in a community is for one to become more like Christ.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a community is that the community holds general patterns of rules for the order of the community as a whole rather than for individual convenience. There are many different community rules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is world, but the rules of the Christian community are distinct from the general rules of the world. The purpose of observance of the rules in the faith community of the Christian School is for the members to create the image of Christ together, and community spirituality is formed in this journey. The small habits of everyday life through a community life become personalities, and these personalities become a beautiful spirituality that reflects the image of Christ.

From a perspective based on this background, our students living in the HIS dorm community have been given a special calling to build the body of Jesus Christ. They are taking special life spirituality training that requires themselves and others to live according to the rules, not for a comfortable individual life. If you see the rules of student life, most of them imply not harming your neighbors. Living by your own convenience eventually makes others uncomfortable in a community life. Christians are required to be educated more in civil consciousness and compliance, along with more practical training in real life. Community life in a Christian school dormitory provides students with an appropriate training ground to naturally acquire Biblical community spirituality.

In order to provide consistent and fair rule compliance training for students, HIS dormitory has implemented a merit-demerit system. However, judging and disciplin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rules itself is not the main purpose. We practice rule-

절제하는 것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영성의 일환입니다. HIS 생활관 학생들은 지난 2년 여간 이어져온 까다로운 방역지침과 함께 규칙을 잘 지켜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때로는 규칙 위반으로 이에 합당한 벌점 조치를 받아왔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이행해주어 고맙고 자랑스롭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생활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abiding training in the present field of life, to learn to abstain from individualistic behavior that breaks down the community order and harms other students. This is a part of spirituality, which requires practicing the Bible's teaching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ves, as much as you love God. During the past two years, HIS dormitory students have carefully followed restrictions and guidelines. A small number of students have received penalty measures due to violation of the rules, but most students have complied with them well, which we are grateful for and proud of. We sincerely hope that we fulfill the law of Christ by bearing each other's burden in the HIS dorm community.



## 01

###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부르심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 6:2)

### The Calling as One Body in Christ

"Carry each other's burdens,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Gal 6:2)

생활관에 함께 사는 친구가 다리를 다쳐 공동체 친구들이 신실하게 친구를 돌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독교 공동체 영성훈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Here is a picture of students in the dormitory taking care of a friend who injured her leg. Students are learning to practice spiritual training in their Christian community by loving their neighbors as they love God who is invisible.

## 02

### 생활관 주일 학생열린예배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 10:24-25)

### Sunday Open Student Worship in Dorm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Heb 10:24-25)



생활관은 매월 첫째 주일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주일은 한동대학교 영어예배(HIC)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주일예배는 설교자와 학생청중의 이중적 구조를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되어 말씀, 간증, 특송 등으로 자원함으로 참여하는 학생열린예배를 지향합니다.

On every first Sunday of the month, we hold our own service and participate in Handong International Congregation(HIC) on other Sundays. We seek to have open dormitory services where students are not simply the audience but actively volunteer to deliver a message, share their testimony, sing praises, etc.



## 생활관 간사님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9)

### Dorm Parents

“But whoever practices and teaches these commands  
wi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Matt 5:19)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는 생활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면서 학생들을 돌보는 목자의 부르심을  
받은 간사님들입니다. 세속적 척도의 관리감독이 아닌  
십자가 사랑의 목양적 돌봄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된 시민의식 교육을 위해  
합당한 규정을 적용하고 상벌점제도를 시행하며  
학생들이 선한 습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간사님들은 규칙이 적용된 선한 습관이  
학생들의 인격이 되고 이 인격이 거룩한 영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먼저  
우리 스스로가 행하며 본을 보이는 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도전받고 있습니다.



Dorm parents are called as shepherds to live out the Word  
in their daily lives while spending time with students. We  
seek to not just supervise students by worldly standards  
but care for students with love from the cross. Thus we  
apply regulations and implement a merit-demerit system  
to educate students to become model citizens as Christians  
and also guide them to develop good habits. Dorm parents  
earnestly pray and challenge ourselves first, that the  
regulations may help students develop improved habits  
and grow in character to be prepared as children of God.



영성훈련의 일환으로 매일밤 성경원문 공동체  
성경읽기와 큐티책 묵상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하여 현재 구약 창세기부터  
이사야서까지, 신약 마태복음부터 고린도서까지  
통독을 하여 올해 성경통독 완주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큐티책도 매일 함께 모여 묵상하고 노트하며  
회중 가운데 목소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묵상한 것을 앞다투어  
나누고 있습니다.

## 공동체 성경읽기와 묵상나눔시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 Bible Public Reading and Sharing Devotion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Ps 119:105)

Every night, students study the Bible and share  
devotions as a part of spiritual training. Since  
last year, we have read from Genesis to Isaiah  
in the Old Testament and from Matthew to  
Corinthians in the New Testament and will  
complete reading the whole Bible this year. Also  
students share our devotion every day, write  
down our reflections, and speak them out to the  
audience. Many students are eager to share  
their devotions in front of their roommates.



안녕하세요, 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상담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상담 신청

-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jungeunjang@his.sc.kr](mailto:jungeunjang@his.sc.kr) 로 신청을 합니다.
- 학생의 상황에 따라 5-10회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MMPI\_A검사와 TCI검사와 해석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며 대처방법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 정서 · 행동특성검사

4월 4-13일 초, 중, 고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각 가정에게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TCI 검사 기반 상담

- **TCI 검사란?** 기질과 성격을 통해 사고나 감정양식, 행동 패턴, 대인관계 양상 등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가정 내 원활한 소통방법과 학습 습관 지도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상** 신청한 학생 및 학부모 (신청 종결됨)
- **일시** PTC(5월 9일-13일)기간에 TCI검사 해석상담실시

## 긍정심리기반 진로프로그램

- **대상** 신청한 고등학생 (신청 진행 중)
- **일시** 4/28 - 5/24까지 매주 일요일 19:00 - 20:40 (총 5회)
- **장소** 한동글로벌학교 진로부실 (MH 201호)
- **진행** 이은혜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정은 상담교사 (보조진행)

2학기때도 더 많은 학부모님께 한동글로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ello, we are grateful for your prayers for our school.  
We inform you on applying for counseling.

## Apply Counseling

- Students who need counseling should apply to [jungeunjang@his.sc.kr](mailto:jungeunjang@his.sc.kr)
- Depending on the student's situation, it may be held up to 5 to 10 times.
- We will use the MMPI\_A and TCI test to observe in a wider perspective and thus find ways to cope with the student's situation.

## Emotional Behavioral Characteristics Test

During Apr 4-13, we took an Emotional Behavioral Characteristics Test. Results will be sent to each household. If follow up is required, we will contact you personally.

## TCI Test Based Counseling

- **The TCI test** examines a student's behavior patterns, interpersonal aspects, etc. through temperament and personality. We will provide counseling on improved communication with family members and guidance for students' study habits, etc.
- **Applicants** Applied parents and Students (Closed)
- **Period** TCI Test Interpretation Counseling held during PTC(May 9-13)

## Positive Psychology-Based Career Program

- **Applicants** High School Students (Applicable)
- **Period** 4/28 - 5/24 once in a week, 5 times (19:00 - 20:40)
- **Location** HIS Guidance Counselor's Office (MH201)
- **Speaker** Lee Eun-Hye (HGU Counselling Psychology & Social Welfare Professor),  
JungEun Jang Counselor (Assistant)

We will continue to provide more counseling  
services for parents following the next semester.



# 도서관 소식 · Library News

이희정 사서 | Ms. Hee Jung Lee Librarian

나른한 햇살을 만끽하며 책 읽기 좋은 5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시나요?  
아직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향기로운 봄 바람을 타고 '특-별-한-시간'  
도서들이 우리 도서관을 찾아 왔습니다!

The season has come to enjoy the sunlight while reading a book!  
What kind of books are you reading these days?  
For those who are looking for the next book to  
read, we have some exciting news!  
'Special-New-books-' have arrived at our  
library along with the spring breeze.



## · 이수지 작가, '아동문학계 노벨상' 안데르센상 수상 작품

Lee Su-ji won the Andersen Prize for the Nobel Prize in Children's Literature



이수지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종이책의  
물성을 이야기에 적극  
활용한 작업을  
선보여 국제적으로  
주목 받았습니

다. 종이책을 펼쳤을 때  
가운데 제본선으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표현한 이른바 '경계 그림책  
3부작'인 '파도야 놀자', '거울 속으로',  
'그림자놀이'가 대표 작품으로 꼽힙니다.  
동화책이지만 특히 예술 디자인에 관심 있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Lee Su-ji is an artist who majored in Western painting,  
and has been internationally noted for her work  
on applying physical properties on paper  
books in the story. With her representative  
works; "Let's play, waves," "Into the mirror,"  
and "Playing with the Shadow," the so-  
called "Boundary Picture Book Trilogy,"  
she expresses the boundary of reality  
and fantasy through the bookbinding  
line in the middle of the paper book.  
Though it is a fairy tale book, it seems to be a  
good inspiration, especially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art /design.

## · 시공주니어, 칼데콧 아너 상 수상작품 30권

30 Caldecott Arner Award-winning Works by Sigong Jr.

시공주니어의 칼데콧 아너상 수상 작품집을  
만나 봅니다, 전세계 좋은 그림책으로만 구성된  
창작동화이지요,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단 한 권의 책에만 수상하는  
상입니다. 독특한 화풍, 기법, 생각등으로 표현된  
개성이 강한 그림책이며, 예술 작품의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통해 상상력과 생각을 높여주는 책입니다!

We meet the Caldecott Arner Award-winning collection of poetry,  
a creative fairy tale consisting of exceptional picture books from  
around the world, an award that is awarded only to one book that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onsiders the best. It is a picture  
book with a strong personality expressed in unique paintings,  
techniques, and thoughts, and a book that enhances imagination  
and thought through various themes and contents of works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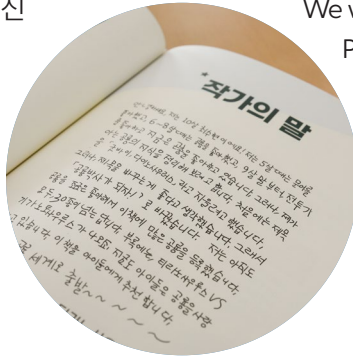




## 초등작가 - 최수현, 공룡박사가 되자!

Elementary Artist-Choi Soo-hyun, Let's become Dr. Dinosaur!

한동대학교 박혜경 부총장님께서 보내 주신  
기증도서를 만나봅니다. 제자분의 어린  
자녀가 저자인데요, 공룡을 사랑한  
최수현 군의 그림책은 “우리 HIS  
어린이들도 작가가 될 수 있지요!”라는  
기특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더 멋지고  
귀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We will meet donated books sent by Vice-  
President Hae-Kyeong Park of Handong  
University. Her student's child is the author.  
The dinosaur lover Choi Soo-hyun's picture  
book sends a message of cheer to HIS  
children that “You can be a writer, too!”  
Books encourage people to grow  
and become a better person.



## 두루마리 필사 성경 - 한 줄 시편 쓰기 릴레이

무엇보다 가장 훌륭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지요, 우리 도서관에는 ‘필사성경 -  
시편’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며 가며 한  
줄씩 새기는 필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지요.

The best book would be the Bible, and we have  
prepared a 'Writing Scripture - Psalms' corner  
in our library. As students pass by, engraving  
a verse of the Bible will be a graceful time.



## 소년한국신문 - 정기구독 기증

Children's Hankook Newspaper-Subscription Donation

지난해부터 우리학교 정어진 학생의  
부모님께서 '소년한국신문'을  
정기구독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마음껏  
열람하고, 또 부수가 넉넉하니 필요한  
학생은 한 부씩 가져가도 좋습니다!



Since last year, parents of Eojin Jung  
have donated the "Children's Hankook  
Newspaper" as a regular subscription.  
It is located at the entrance of the library so that  
you can read it to your taste. There are plenty of copies,  
so students may feel free to take a copy if they need it.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기르심을 실천해 주시는  
학부모님과 학생들로 우리 도서관이 좋은 울림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환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ith parents and students who are practicing  
growth, our library is becoming a good resonance.  
We will share the bright grace of God.

## HIS Library, 5월 한정 독서이벤트 · HIS Library Reading Event (Only in May)

행사기간 : 5.1 - 5.30

Event period : 5.1 - 5.30

매일 선착순-10명, 책갈피 및 레모나  
서평 및 북튜브 영상-10명, 사인본 시집 증정  
한 줄 감상평 쓰기-30명, 문구류 증정

Daily first - come, first-served-10 people, bookmarks and Lemona  
Book Review & BookTube video -10 students, autographed poetry collection book  
One Line Review-30 students, stationery gift reward

운영방법 : 경북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출 도서 서평 작성시 기록 인정

How to apply : Gyeongbuk Reading Education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Submit a book review of the book you have loaned at the homepage

문의사항 : 도서관 이희정  
heejunglee@his.sc.kr / 054-260-1742

Contact : Librarian Hee Jung Lee,  
heejunglee@his.sc.kr / 054-260-1742

서평 등록 · Apply Book Review <https://bit.ly/3s3aIKb>



10학년은 입학하자마자 3월 한 달간 한국단편소설 35작품을 읽고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 중 두 학생의 글을 소개합니다.

During March, as soon as 10th graders entered HHS, they read 35 Korean short novels and then completed their assignments on answering two questions. Here are two students' writings.

## 1. 감자(김동인) 작품을 읽고 든 생각이 있다면?

### 1. What were your thoughts after reading *Potato*(Dong In Kim)?

조성연 10C | Ms. Sungyeon Cho 10C

작품 *감자*를 읽고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인간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작품 속에서 복녀는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있게 자라난 처녀라고 소개된다. 복녀는 원래 막연하게나마 도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게으른 홀아비에게 시집간 이후로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복녀라는 사람 자체가 변하게 되었다. 작품 속에서 복녀가 변하는 상황을 보며 인간은 누구나 급박한 현실과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복녀는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의 벽에 부딪쳐서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포기한다. 작품을 읽고 과연 내가 복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끝까지 양심과 도덕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가 도덕과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내 환경과 현실이 급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복녀가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이고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이지만, 그런 극단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 처해본 적 없는 우리가 과연 그 행동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만약 복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한 질문도 들었다.

After reading *Potato*, I thought about how people change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I felt that people are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In the beginning of the book, the 'blessed lady' is introduced as being brought up in a poor but honest farmhouse with orders. At first, she was a person who had a sense of morals, though it was vague. But after she married a widower, her environment changed drastically, which made her an entirely different person. I learned that people can change when they meet different situations. Later, the blessed lady gives up on her moral standards, just to keep up with her life. I questioned myself how I would respond to the situation if I were the blessed lady. It seems to me that the reason I can keep my conscience clear right now, is because my current situation is not as urgent as her. Also, what the blessed lady did was definitely wrong, but those who have not been in her situation may not have the right to criticize her. I asked myself how I would react if I were in her position.

## 2. 배따라기(김동인) 작품에서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찾아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2. Write your favorite sentence in *Baettaragi*(Dong In Kim) and explain why you like it.

조성연 10C | Ms. Sungyeon Cho 10C

“

그 불행의 모든 죄는 죄다 그에게 있었다.  
The sin of misfortune was all upon him.





배따라기 작품 속에서 ‘그 불행의 모든 죄는 죄다 그에게 있었다’라는 문장이 가장 인상깊었고, 마음에 들었다.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자신이 아닌 남, 상황 또는 신을 탓한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이 자초한 불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탓한다. 작품 속 “그 불행의 모든 죄는 죄다 그에게 있었다”라는 문장이 아내와 아우를 의심하다가 결국 아내를 죽음까지 몰아넣고 아우를 잃은 주인공에게 “이 모든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닌 너의 탓이고 잘못이다”라고 뼈기를 박아주는 느낌이었다. 다른 상황 탓, 남탓을 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모두 너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듯한 문장이 차가우면서도 분명해서 좋았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나도 어떠한 불행을 마주했을 때 상황이나 남 탓을 하지 말고 온전히 내 죄이고 잘못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온전히 자신의 잘못, 탓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내 죄 때문에 생긴 불행을 남 탓으로 미루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임을 깨달았다. 작품을 읽고 내가 자초한 불행을 남의 탓으로 미룬 적은 없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해보게 되었다.

The sentence ‘The sin of misfortune was all upon him.’ was the most memorable line in the book to me. Most of the people, including me, blame the situation and others when misfortune happens to them. Though they know that they themselves have responsibility, they find another reason for the mess. It felt as if the line “The sin of misfortune was all upon him.” was confirming to the main character that “This is all your fault.” for losing both his brother and wife by being suspicious of their relationship. I liked how clear and icy the sentence was by not even allowing a chance to blame someone else. It made me think that I should be able to acknowledge my wrong thoughts and actions when I face such a situation in the future. Though this is the most difficult thing to do in reality, I learned that it is important to overcome this problem. Also, I could see how foolish it is to blame someone for the wrongdoings of myself. Thanks to this book, I reflected on myself, observing if I had ever blamed someone else for my bad.

## 1. 술 권하는 사회(현진건) 작품에서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찾아 쓰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1. Write your favorite sentence in *A Drinking Society*(Jin Gun Hyun) and explain why you like it.

유서영 10A | Ms. Seoyoung Yoo 10A

똑똑하고 가능성 있는 머리를 가졌음에도 술을 마시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나라는 의미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문장이 이해가 가지 않아 여러 번 집중해서 읽어보아야 했다. 이 작품에서 아내는 매일같이 술을 먹고 오는 남편이 답답하기만 했다. 하지만 답답하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술을 먹는 이유를 아내에게 설명을 해 주어도 아내는 알아듣지 못한다. 물론 남편이 처음부터 술을 날마다 마신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희망감을 품고 열정적으로 일 하였다. 하지만, 이 사회는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등 서로 이기적이고 자신들만 잘 살려는 악한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은 할 수 있는 일이 술을 마시는 것밖에 없었다.

The sentence implies what the reason is for drinking alcohol with a smart intellect. At first, I had to read it several times because I couldn't understand the meaning clearly. In this book, the wife is tired of her husband who is always drunk when he arrives home. But the husband was also tired of his wife, because she couldn't understand the reason he drank when he told her. Of course, he didn't drink as much before. It all started when he decided to change the society with hope and worked with passion. But the society was full with disputes on issues of fame and status, etc., because people were selfish and sought only for their



”

아아, 유익유망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 아니  
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Ah, what is this that doesn't allow  
the intellect with a promising future  
not to be numb with alcohol.

남편이 진짜 술을 먹고 오는 이유는 바로 사회라고 그의 아내에게 여러 번 알려 주었지만, 아내는 사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다. “적이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이 문장은 그 시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로부터 압박을 당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다.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도 없을 만큼 어지러운 사회에서 맑은 정신으로 부패한 사회를 어떻게든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 같다.

good. All the husband could do was drink. Though he told his wife several times that the reason he drank was because of the society, the wife didn't understand the society. "If your enemy has a normal mentality, all you can do is die in blood. If not, all you can do is drink." I could feel how the people in that certain society are pressured through this line. In a world that was hard to let alone bear with a sober mind, it would have felt impossible to change the society.

## 2. 술 권하는 사회(현진건)에서 현대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 설명하시오.

2. Describe the part which *A Drinking Society*(Jin Gun Hyun) helped you on how to make improvements on modern society issues.

유서영 10A | Ms. Seoyoung Yoo 10A

술 권하는 사회는 현대 사회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유의유망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다. 하지만 그 유의유망한 머리로 매일같이 술만 마시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똑똑하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열정을 잃고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손실이 아닐까? 어쩌면 이 사회가 꿈 많은 청년들을 죽이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이 사회를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을 이 사회는 실망시키게 된다. 이 사회가 개선이 되려면, 꿈과 희망이 있는 청년들의 열정이 변치 않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고집스럽지 않아야 하고, 불필요한 전통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랫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내세워 자신만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리 중요한가? 우리 사회는 너무 이기적이다.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자신만 생각하고 일한다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사회란, 다같이 살고 먹고 협력하는 공동체이다. 애초에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같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자신만 살고 먹게 된다면 발전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하루 하루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사회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이 작품에서도 남편이 매일같이 술을 마셨던 이유는 사회가 변화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 좋은 공동체로 변할 수 있지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더 나은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하는 건가? 이 작품에 나왔던 남편처럼 다들 술 마시는 것밖엔 하지 못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회 속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버티지 못할 정도로 많은 압박과 고통을 받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한다. 앞으로 사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변화될 것이고, 변화해야만 한다.

*A Drinking Society* well depicts the problems of modern society. There truly are smart people worldwide, who have potential. But if all they do with that talent is drinking, what use would it be? Wouldn't it be a great loss to our society if a smart person with hope lost that passion and eventually their dream? It might be that this society is leading young people to losing their dreams. Those who started with passion to 'change the world' are left disappointed. For this society to improve, it needs to be able to support the dreams of young people. I think that those in high status should not be obstinate and should be able to turn down unnecessary traditions. Is it that important to show how distinguished I am? Whether it is a small or big society, if people only work for themselves, the society cannot grow. A society is a community where all live and ea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 company is a place where everyone works together for the same purpose. How would it improve when someone works for only one's self? We must focus on keeping others in mind in our everyday life and not our selfish human nature, if we truly desire to grow as a society. Also, the society should give us opportunities. Even if someone is smart and creative with useful ideas, if they do not provide ways to express our talent, the society cannot grow. In this book, I think that the husband was always drunk because the society didn't give him a chance to make a difference. If there are no opportunities for those who want to improve the society, where should they go? They could only drink like the husband in this book. Those who want to make a positive difference but live in a dark society, are pressured in pain that drives them to drinking. But I still believe that many sober-minded people exist and that we should support them to pursue good works in our society.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Renew  
Our  
Mind!